

* SUCCESS STORY ⁰¹

신한금융투자

SHINHAN INVESTMENT CO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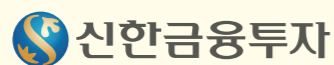


www.shinhaninvest.com

신한금융투자, 통합정보계 구축으로 월별 회계 작업속도 7배 향상 및 데이터 기반의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가능 해져 안정적인 고객 수익률 관리 기반 마련

신한금융투자는 고성능의 Oracle Exadata를 도입해 고성능의 확장성 높은 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데이터 처리 및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단순화하고, 중복데이터 및 데이터 복제 작업을 제거해 데이터 관리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일일 배치 작업 속도를 3배, 월별 회계 작업 속도를 7배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로 실시간 수익률 분석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빠른 의사 결정을 통해 고객 수익률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산영업 기반을 마련했다.

- 양재원 본부장, CIO, 신한금융투자



회사 소개

신한금융투자
(Shinhan Investment)
서울, 대한민국
www.shinhaninvest.com

산업군

금융업

연 매출

US\$1 to US\$5 Billion

직원 수

2,166명

파트너사

썬테크정보
www.suntech.co.kr

도입 제품

Oracle Exadata Database Machine

도입 효과

· 신한금융투자는 Oracle Exadata Database Machine을 기반으로 정보계 시스템과 DW 시스템을 포괄하는 통합 정보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 Oracle Exadata의 우수한 성능과 스마트 스캔 기능을 통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일일 배치 작업 속도를 3배 및 월별 관리회계 배치 작업 속도를 7배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IT 부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으며, 직원 생산성이 증가했다.

· 별도의 데이터 집계 과정 없이 로우(Raw)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개발 과정에 소요되던 데이터베이스 용량 및 인적 리소스를 절약하고, 개발 기간을 50% 이상 단축했다. 이를 통해 현업 부서에 대한 신속한 업무 지원이 가능해져 현업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적시에 비즈니스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

· 통합 정보계 시스템하에서 ETL 및 데이터 집계 과정을 단순화해 데이터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중간 집계 데이터양을 최대 94%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데이터베이스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도전 과제

· 계정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빠른 흐름과 복잡해지는 고객의 요구에 맞춘 신속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필요했다.

·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일일 및 월별 배치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높은 성능의 정보계 시스템이 필요했다.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로 인한 스토리지 증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확장성 높은 고용량의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했다.

· 데이터 통합을 통해 70%에 이르던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고, Oracle Exadata의 Hybrid Columnar Compression 기능을 활용한 데이터 압축을 통해 스토리지 용량을 2배 절감했다.

· Oracle Exadata 기반의 통합 정보계 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거래 데이터 및 실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회사 수익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

· 확장성 높은 Oracle Exadata의 도입을 통해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이터를 대비해 간편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1973년 설립된 신한금융투자는 대한민국 초우량 기업인 신한금융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다. 은행, 카드사, 생명보험사 등을 아우르는 신한금융그룹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업종간 장벽을 뛰어넘는 복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는 업계 최초로 '고객수익률 직원평가제도'를 실시하며, 고객과 회사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ARS(Absolute Return Swap)', '첫스텝80시리즈ELS' 등 다양한 베스트셀러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며, 저금리 시대 증권투자의 방법론을 제시하며 업계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국내 증권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더 빠른 대용량 정보 분석 시스템 도입이 필요했다. 이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계 시스템과 DW 시스템을 Oracle Exadata Database Machine으로 통합 구축해 실시간 정보 분석 기반의 빠른 비즈니스 처리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통합 정보계 구축으로 일일 배치 작업 속도를 3배 및 월별 회계 작업 속도를 7배 향상시키고, 개발 기간을 50% 이상 단축했으며,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실시간 의사 결정 능력을 확보하며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일일 배치 작업속도 3배 및 월별 회계 작업속도 7배 향상시키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 능력 확보

기존에는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지주회사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그룹 DW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한금융투자의 정보계 시스템과 DW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보계 시스템을 거쳐 DW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 데이터 처리 과정이 불편하고 복잡했다. 보다 효율적으로 DW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신한금융투자의 독립된 자체 DW 시스템 구축이 요구됐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OLTP와 DW 작업을 혁신적으로 통합한 Oracle Exadata Database Machine을 도입해 정보계 시스템과 DW 시스템을 포괄하는 통합 정보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데이터베이스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자사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 현업에서 DW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Oracle Exadata의 우수한 성능과 스마트 스캔 기능을 활용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영업 정보 데이터의 일일 배치 시간을 기존 9시간 30분에서 3시간으로, CRM 관련 데이터 처리 시간은 12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며 업무 속도를 3배 단축시켰다. 또한 기

존 시스템하에서 14시간이 소요되던 월별 관리회계 배치 작업 시간을 2시간으로 줄여 7배의 업무 속도 향상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IT 부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으며, 데이터 처리 지연으로 인해 현업에 미치던 영향을 제거해 직원 생산성이 증가했다.

"Oracle Exadata 기반의 통합 정보계 시스템 구축으로 계정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데이터 및 실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금융 상품별 수익성, 고객의 자산 현황 및 영업 실적에 대해 더 신속하고 정확한 예측 및 파악이 가능해졌으며, 데이터에 기반을 둔 마케팅 및 의사 결정 능력이 강화됐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회사 수익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 양재원 본부장, CIO, 신한금융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기간 50% 단축해 신속한 업무 지원 가능

신한금융투자는 기존 브로커리지 중심의 영업환경에서 종합 자산관리 기반의 영업이 중요시되는 국내 증권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더 빠른 대용량 정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했다. 기존에는 현업에서 계좌, 자산 및 수익 등 경영정보시스템(MIS) 정보를 위해 신규 개발을 요청할 경우, DBMS 내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 배치 및 조회

서비스와 화면 개발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Oracle Exadata 기반의 통합 정보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ETL 및 데이터 집계 과정을 단순화해 데이터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중간 집계 데이터양을 최대 94%까지 줄였다. 특히 개발 과정 시 현업의 검수단계에서 수정을 요청할 경우, 하루가 소요되던 별도의 데이터 집계 과정을 없애고 로우(Raw) 데이터를 데이터 추출이 가능해져 현업의 중간 확인 과정이 짧아졌다. 따라서 기존에 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기간을 50%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현업 부서에 대한 신속한 업무 지원이 가능해져 현업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적시에 비즈니스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됐다. 또한 기존 개발 과정에서 테이블 생성, 배치, 화면 개발 작업 등에 소비되던 데이터베이스 용량 및 인적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 중복 최소화 및 압축 효율 향상으로 스토리지 용량 2배 절감

기존 분리된 정보계 시스템과 DW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 중 70%가 중복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데이터 관리가 어렵고, 시스템 부하가 가중됐으며, 스토리지 용량이 낭비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신한금융투자는 Oracle Exadata를 적용

해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통합하고, Oracle Exadata의 Hybrid Columnar Compression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압축을 통해 총 40 테라바이트(TB)의 데이터를 20 테라바이트 (TB)로 줄이며 스토리지 용량을 2배 절약할 수 있었다.

추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확장성 높은 Oracle Exadata를 통해 간편하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

오라클 선택 이유

신한금융투자는 기존에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지주회사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그룹 DW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정보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성능과 고용량 요구를 충족하는 오라클 엑사데이터를 선택했다. 오라클 엑사데이터는 OLTP와 DW를 혁신적으로 통합해 실시간 정보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 점과 데이터 집계 아키텍처를 단순화해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고,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점이 주요 선택 요인이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이관이 쉽고, 사용이 편리해 DBA와 개발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도 선택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구축 과정

신한금융투자는 2014년 8월부터 Oracle

Exadata를 통해 정보계 시스템과 DW, 과거 거래원장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 정보계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진행했다. 프로그램 최적화 작업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과 성능 테스트를 거쳐 2014년 12월부터 현장에 적용해 원활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파트너 성과

센테크정보

센테크 정보는 신한금융투자의 Oracle Exadata Database Machine 도입부터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기술 지원 및 현재 시스템 유지 보수 지원까지 맡고 있다. 센테크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영업조직 및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다수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기술 지원 조직을 기반으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